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전도 제자의 자세"
성경	빌립보서 2:1-11
일시	2018년 05월 13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녹취 자료 ♣

• 오늘 '어머니 날', 'Mother's Day'이다. 일단 어머님들 참 수고 많으셨다. 남편... 또 자녀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저 역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아내와 잠깐 얘기를 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게 사랑 고백이기 이전에 제가 참 성격이 못됐다. 참 모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아픈 부분도 많지만 이런 나를 품고 지금까지 참 아주고 또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고백을 했다. "참 수고가 많소." ^^ 오늘 아버지 또 어머니... 이 부모들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아시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소중하다.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먼저 아버지 된 자들이 또 어머니 된 자들이 또 우리 부모 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은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예수... 달랐다.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 제자들이 하는 예수는 분명히 다르다. 오늘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에 대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전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꼭 알아야 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자, 제자들에게 질문 했던 '질문'이 뭐였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 하셨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니다. 여러분. 제자의 '첫 신앙'이 뭔지 아시는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제자는 나를 부르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주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열들이 나왔다. "이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 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부르신 이'가 누군지... 오늘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신 이가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원하는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를 잘 알아야 되는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 저는 근 10년 넘게 교회 생활을 쫓~ 하면서 다른 것은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정작 뭘 몰랐는가? 예수님을 몰랐다.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신앙의 경험들... 보았던 성경의 지식들... 읽었던 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알게 됐다. '아!~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던 거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고백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저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분이 우리 눈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그 분'이 누군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구약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왕'이 세움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역시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도

♣ 성경말씀 (빌립보서 2:1-11)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요약 자료 ♣

전도제자의 눈 (빌립보서 1:1-11)

1. 전도제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 1) 긍휼입니다.(빌립보서 2:1)
 - 2)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빌립보서 2:2)
 - 3) 겸손한 마음입니다.(빌립보서 2:3)
2. 전도제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 1)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5)
 - 2) 그리스도처럼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2:6-8)
 - 3)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9-11)
3. 전도제자가 갖추어야 할 제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 1)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제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13)
 - 2) 제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빌 2:16)
 - 3)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에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2:17~18)
 - 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11)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또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에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취임식을 얘기 하는게 아니다. 그 취임식을 통해서 세워진 왕의 참 된 의미. 참 된 제사장의 의미. 참 된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된다. 왕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제사장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선지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게 뭐가? '근본 영적인 문제'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 했던 '사단의 문제.'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근본이 되는 '원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지옥 저주의 문제.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사의 첫 신앙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시는가? "네가 복이 있구나!" 진짜 복이 뭔지 아시는가? 예수님을 아는게 복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게 복이다.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자'이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걸 이름하여 저는 '구원'이라 말한다. 제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복을 제가 받았다. 그걸 생각하면 늘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복되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교회가 뭐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다. 그래서 이번 지난 주에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문제 될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제자는... 전도 제자는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았던 거다. 그 사이에서 '바울의 기쁨'이 뭐였을까? 빌립보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 제가 성경을 거꾸로 한 번 설명을 해보겠다. 2장을 보면 전도제자였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가 전달되는데... 전달 될 때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Epaphroditus)라고 하는 제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한 사역자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담아... 곧 헌금과 그 정성을 담아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된다. 누구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려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을 만났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을 섬기고 복음 때문에 그를 위해 모든 섬기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다. 어떤 병이 들었나? 죽을병이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에 전력했던 그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자를 도왔다."고 그러다. 그래서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맹수있잖은가? 뭐... 사자, 호랑이, 곰... 이런 야수들을... 맹수들을 큰 경기장에 보낸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 누구를 보내냐면 검투사... 다시 말해서 그 맹수와 싸울 검투사를 딱 들여보내는 거다. 그거를 구경하는 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검투사는 뭐하는가?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맹수와 싸우는거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맹수와 싸우는 그 자세를 보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러다. 바로 바울과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섬겼던 사람. 그게 누군지 아시는가?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그런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 보낸 그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 이게 또 근심이 되는 거다. 바울에게도 근심이 됐고 보낸 빌립보 교회에도 근심이 된 거다. 그 두... 바울과 빌립보 그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바울의 근심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근심을 해결 해주셨다. 그 죽을병에서 누구를?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는 바울. 그 소식을 빨리 알고자 했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내가 사역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라. 가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훈을 받은 자로 살아났음을... 그들의 근심을 덜어줘라.' 라고 이를 보내게 된다. 저는 그걸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있었고 그 복음 때문에 세워진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에바브로디도인 사역자도 그랬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도 딱 하나로 '하나'가 됐다. 그게 뭔지 아시는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그림이 나왔다. 목사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목사. 성도는... 사역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욕신의 것 챙기고... 시간 다 때고 그리고 성도들 돌보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램넛트를 돌보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맹수와 싸웠던 검투사들과 같이...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검투사와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과 램넛트들이... 후대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다. 그 복음을 받은 첫 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그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려진 거다. 목사인 나, 우리 사역자들인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받는 우리 성도이 그 받은 그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짝~ 깔려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복음을 받은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설명을 드린거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어떤 복음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복음 가운데 있었던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에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런 비밀을 가진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첫 째, 어떤 자세라고 했다? '전도 제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 제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공훈.' 두 번째로는 '한 마음.' 세 번째로는 '겸손.'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 여러분이 공훈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 중심'... 6장에 '물질 중심'... 11장에 '세상과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의 문화' 가운데 태어나서 그 문화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 되어졌다가 결국은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묶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내가 자녀가 됐는가? 그게 '하나님의 공훈'이 아니었었다면... 공훈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입을 고백하여 주를 고백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단어가 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갚을 수가 없다. 제 생명을 다하고 제 모든 열정을 다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아 숨쉬는 그 동안에 이 하나님의 공훈의 복음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 항상 편지를 쓸 때나 어떤 이메일을 보낼 때나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을 보낼 때는 꼭 제가 제 넉넉임처럼 쓰는 단어가 있다. '복음에 빚진 자' 아무개... 이렇게 쓴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런 공훈을 받은 우리들이다. 권면을 할 때도... 위로를 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공훈을 받은 자.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의 자세를 결코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제자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삶의 자세였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한 마음, 방향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 했고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 했고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놓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대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한이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가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받아야 되는데 몰랐을 때는 세상을 위해 모든 열정을 24시간... 평생을 육신적인 것에 온 몸을 다 바쳤지만 어느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우린 바뀌어졌다. 이제는 옛, 썩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받은 은혜를 한 번 계수해 보시라. 계산해 보시라.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진짜 감사해서 그것을 말할 때에 절대 여러분 자신이 들어나면 안 된다. 그게 '교만'이 나온다. 그 때부터. 그래서 비교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 '너는 그것도 못 받았어?' '아직 치유도 안 돼?' '아이구, 응답도 없어?!' '자녀들이 왜 그래?' 그게요... '교만'이라는 거다.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게서 나옴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삶의 응답과 축복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거다. 거저 우리는 받은거다.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란 말이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이런 고백을 한다.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한다. 너무 은혜가 커서 자기를 팔락동이라고 말 한다. 열 달 동안 업마 뱃속에 정상적으로 자라야 마땅한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 좀 팔푼이처럼 태어났다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부터도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들... 열 두 사도... 예수님의 부름 받을 때 없었다.' 맨 나중에 하나님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맨 나중에 부름 받은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 일

은? 열 두명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했다. 일을.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 시대와 지역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작은 자라는 거다. 그리 비교하면.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대적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결국 교회의 순교자였던 그 스테반을 죽인 곳에 가담했던 살인자입니다. 이런 내가 사도라고요? 나는 도저히 그 사도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난 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쓰실 수 있었던 거다. 어느 분이 저한테 늘 오시면 하는 말이 있다. "목사님,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가 됐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고... 목사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쓰세요." 전 그 얘기를 들 때마다 "암요! 제가 뭐 내놓을게 있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 받아 교회에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 심부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건데... 내가 뭘 자랑할게 있습니까? 저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 때마다 거꾸로 저는 "전 교만할 건더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배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내세울만한 것도 없고 그저 저의 자랑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높이는게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고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중직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공훈'을 또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이러해야 한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 했던 첫 번째 삶의 자세다. 자, 두 번째 삶의 자세는 뭐였는가? 전도 제가가 갖춰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랬다. 어떤 마음? 예수를 아는 그 마음.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군가?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2장 6절에 "그는..." 이 '그'는 누구겠는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말한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다. 많은 이단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 하는데... 천만에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 셤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전에 그는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를 차지하셨고 지금도 세상 모든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이고 하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차이가 있지 않다. 본질이나... 동일하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를 들어내신 이다. 만물의 주체가 누구시냐?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본질과 본체가 동일하시고 동질이니 같다는 분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겠는가? 왜 창조주가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겠는가? 이유가 뭐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적이 없고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없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 했나? 예수님. 그래서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런다. 누구에게 복종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날 밤 셋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할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하나 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는가? 원래 그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이름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됐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는가?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권세'를 뜻 한다. '권세' 힘이다. '힘' 그 이름으로 뭔가? 귀신이 떠난다. 그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된다. 그 이름 앞에 떨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단 말이다. 지금. 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그 이름 부를 때에 그런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 말이다.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예수 이름 부르고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평가절하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게 된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군가? 여러분이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받은 구원... 그 이름을 증거할 전도 제자로서에 믿음을 가지란 거다. 저는 이 복음으로 들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 정말 나같은 천한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늘 감사하고... 감히 사실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부끄럽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했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제자의 자세를 갖춰라.'라고 말한다. 참, 사도바울이 어느정도의 제자인지를 설명을 한다. 성경에 보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크게 세 명의 제자가 나온다. 누구냐면 바울 자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이 어땠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나온다. 디모데가 바울 곁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가 가장 바울을 잘 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후배 렘넌트였다. 후배 동역자였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도록...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디모데를 이 사람을 보낼 때 디모데를 택한다.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고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내 속사정과 내 입장과 이 현장을 가장 잘 설명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라고 '디모데를 곧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보낸 사역자였었다. 근데 아까처럼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헌신 했던 에바브로디도의 제자의 모습이 나온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바로 제자란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자는 절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게 제자다. 제자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 하느냐? 부르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한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도장을 팡! 찍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를 불렀단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시라. 누군을 위해 사시는가? 주를 위해 사시라. 그게 참 된 제자다. 또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모든 것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는 수고를 아까워 하지 않는 거다. 참 된 수고는 뭐냐면 복음을 위한 수고다.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는 냉수 하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아시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는가? 그 기쁨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는가? '내가 비록 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한 그 수고가 난 너무너무 기뻐다.' 이렇게 얘기 한다. 그래서 주를 위해... 다시 말 하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뭐냐?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은 전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이... 각을 뜬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잘라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는가? 많은 냄새가 나잖는가? 그러니까 그런... 철철 흐르는 곳에 뭘 뿌리냐면 기름이나 포도주를 뿌린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견고하게 돕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전제라는 제사였다. 그 포도주나 기름을 전제라고 그린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비록 기름과 같이... 포도주와 같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쓰임받는 다 할지라도 복음만 잘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흘려 교회만 잘 된다면... 복음에 유익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만 성취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복음 가진 교회를 위해 생을 걸고 헌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그린다.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적으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 은혜가 뭔지 아시는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되어진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삶을 살도록... 그런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헌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 제 힘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 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의 힘 아니라는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다. 그래서 이 번 한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고...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주셨다. 이 축복을 함께 이 번 한주간 동안에 누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전도사:	권 예나 전도사
연락처:	(713) 907-0854
이메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